

지역 소식통

권익현 부안군수, 위도면
생생소통대화 성황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일 위도면 주민복지센터에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기관·단체장 및 마을 대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군민과의 생생소통 대화의 시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위도면 전리아촌계(김석규), 치도어촌계(정해선), 상왕어촌계(노영섭) 각 1백민원의 장학금 기탁식을 시작으로 면정 주요업무 보고, 군정 비전공유, 주민과의 생생소통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도면장(최병관)은 2022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힐링의 섬 위도”를 주제로 위도면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과 함께 여는 미래 부안”을 슬로건으로 2022년 부안군의 군정목표와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면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호응을 얻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귀농형 농촌 살아
보기 체험 본격 운영

부안군은 하서면 청호수마을 권역활성화센터(대표 김진호)에서 4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귀농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거주하며 생활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착을 유도하는 체험프로그램이다.

마을운영자에게는 숙박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참여자에게는 연수비를 지원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이 귀농하고 싶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목적에 맞게 귀농형, 귀촌형 청년 프로젝트형 유형 선택도 가능하다.

올해도 부안군은 5월 7명을 모집하여 3개월 동안 농작물 재배이론 및 현장체험을 통해 농업기초를 다지고 창업성공 사례 현장방문, 선배 귀농인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면서 부안 귀농귀촌에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을 갖는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생명 식품산업 살리기 ‘우수’

“정읍 청년채움공제 시행”

고창군, 한국매니페스트본부 공약이행 평가 ‘A’ 등급

전북 고창군이 사한국매니페스트 실천본부가 실시한 ‘202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A’ 등급을 받았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사

매니페스트본부에서 2021년말 기준 2022 전국 시장·군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마무리 시점에서 공약이행에 대한 마지막 평가로 고창군은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평가점수 86점 이상으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민선 7기 고창군수 공약은 ‘고창미래먹거리 농생명식품 살리기 등 6개 분야 64개 이 중 51개의 사업이 완료·이행후 지속추진으로 분류됐다.

내머지 13개 사업도 정상추진으로 임기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민선 7기 고창군은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기치로, “고창미래먹거리 농생명 식품산업 살리기 ▲품격있는 역사문화 생태관광 기반 조성 ▲자식농사 잘 짓는 사립키우기 ▲군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실현 ▲함께 살리고 잘사는 상생경제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 등 6대 분야 핵심공약을 추진 중이다.

특히 그간 고창군은 공약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이행을 위해 군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를 매년 2차례씩 실시해 민주적 투명성을 높였다.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진

행상황을 수시로 게시해 정보공개에도 힘썼다. 대표 공약 사업중 하나인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증진-농민수당’은 고창군이 전라북도 최초로 시작해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공동체를 보존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높이고창 정착,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나눔과 봉사 기부전국 고창만들기,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다.

고창군수는 “이번 평가는 고창군민들께 약속한 일들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주민참여를 통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행상황을 수시로 게시해 정보공개에도 힘썼다.

대표 공약 사업중 하나인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증진-농민수당’은 고창군이 전라북도 최초로 시작해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공동체를 보존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높이고창 정착,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나눔과 봉사 기부전국 고창만들기,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다.

고창군수는 “이번 평가는 고창군민들께 약속한 일들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주민참여를 통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정읍, 청년이 돌아오는 정읍”이아말로 정읍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민영 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4일 정읍형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정읍 청년채움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안정된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일을 할 청년들이 없다면 결국 기업들도 정읍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직장을 다니거나 창업을 한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취업을 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읍형 기본소득제의 일환으로 ‘정읍 청년채움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읍 청년채움공제는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로 운영한다”며 “지역이 엄격하고, 기업이 함께 참여해야만 가

능한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창업을 한 청년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읍시가 15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3년간 자격을 유지하면 1000만원이라는 청년들은 1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소득보전 방법이 더 많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 예비후보는 “정읍청년채움공제를 통해 3년간 1000명의 청년들이 정읍으로 오거나, 정읍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정읍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보다 젊고 역동적인 정읍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민영 예비후보는 정읍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책통이며, 정읍신립조합 4선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읍구립초추진위원 전국 제일의 축제로 만들었던 전문경영인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과의 대화 의견 시정반영 적극 검토 ‘주문’

유진섭 시장, 간부회의 주제

유진섭 시장이 4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추진한 시민과의 공감 대화를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한 데 대해 읍면동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도시가스, 농·배수로 정비 등 생활밀착형 건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를 확립하는 한편 복무 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시장은 4일부터 개방되는 용산호 미르생분수 조성사업의 정리사업을 잘 마무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

라고 지시했다.

또한 4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하는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의 수상레저 체험존(범퍼보트)에 대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 계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카페·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 중심의 계도와 사용 제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지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지역발전 정책공약1 발표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지역발전 정책공약 첫 번째로 “스마트 농업 확대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8개 방향의 공약 중 농업과 농촌 분야에 대한 세부공약을 첫 번째로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박테리아·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해 정읍의 농업이 식량 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농업을 경영하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세부 실행계획으로 ▲지역농협과 상생하는 농가소득 증대 ▲축분처리 자원화 사업 추진 ▲

로컬푸드 활성화로 계약농업 정착 추진 ▲산림조합과 협업 - 산지자원 특화(산약초 작목반 등)사업 확대 ▲어르신 텃밭농업 장려 - 로컬푸드 협동조합 판매장 구축 ▲지산지소 협동조합 설립 등 9가지를 꼽았다.

이중 ‘지역농협과 상생하는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하여서는 “농민과 신대인, 샘골, 황토현, 정읍, 칠보, 태인농협 및 읍면농협, 산림조합, 순정축협 등 지역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품목을 특화하고 이를 6차 산업화로 연결하여 농민의 수익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2 찾아가는 이동군청 마무리

고창군이 지난 3월14일 아산면 방문을 시작으로 보름여간의 14개 읍·면에 대한 2022 찾아가는 이동군청을 성황리에 마쳤다.

‘찾아가는 이동군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군수가 읍·면을 방문해 직접 군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군정을 공유하며 참여하고 소통하는 섬김행정의 대표 정책이다.

특히, 이번 이동군청은 지역 어르신을 비롯해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발굴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연계하여

소외가구 등에 도배를 지원하여 의미를 더했다.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이동군청은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소통·현장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고창군수는 “군민이 군수라는 시대적 사명감 속에 진행된 이동군청에 많은 애정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결의로 다가가는 행정을 전개하며 군민들이 편안히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